

부부간의 심리적 ·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도

The Conjugal Psychological · Physical Abuse, Coping Strategy, and Individual Well-being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정 서 영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
Seo Young Ju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Myung Cha Kim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various causes of conjugal psychological · physical abuse and to determine desirable coping strategy contributing to their individual well-being in the condition.

Survey of 328 couples residing in Seoul and Pusan are picked up as datum sourc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ercentile of husbands who experience psychological abuse stands at 69.8% and 78.1% for the wives, on the other hand physical abuse on the husbands stands at the 25.9% while 44.8% on wives.

2. Coping strategy on psychological · physical abus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sex.

3.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individual well-being, mutual agreement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I. 서론

가정내 학대문제는 학대자에 의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가 무참히도 짓밟히며 피해자에게 심리적·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 여러 학대유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부 상호간에 일어나는 학대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는 주로 아내학대를 다룬 것으로 남편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남편학대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학대의 정도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즉각적인 학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이 주어지고 있지만, 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소홀히 되고 있는데,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서적·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심리적 학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대문제는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는 통념 때문에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 부부 학대 문제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써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이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 해결책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학문적 연구들은 학대정도와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학대받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나 우울증 등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부부가 실제 학대상황에 처했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아내학대 문제만을 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가정에서 부부간에 학대문제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학대 상황에서 부부 개인이 어떠한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와 또 개인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바람직한 대처양식을 모색하고 개인의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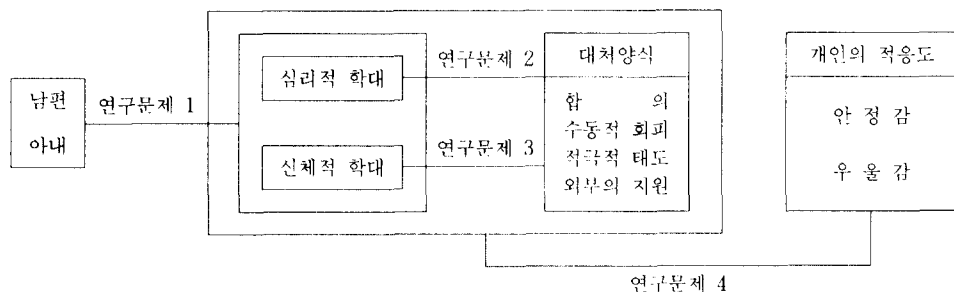
[연구문제 1] 부부간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심리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체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개인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1) 심리적 학대

부부간에 발생하는 언어적·감정적 학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로 모욕적인 말이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 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신체적 학대

부부간에 해칠 의도를 가지고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3) 대처양식

부부가 심리적·신체적 학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서로 의논하여 해결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에 대처하거나,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대안을 말한다.

4) 개인의 적응도

부부 개개인의 전반적인 정서적 평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개념으로 안정감·우울감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안정감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적응을 이룬 상태로 정의하고, 우울감은 어떤 일에 대해 절망적이며 회복할 희망을 버리고 포기한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1) 심리적·신체적 학대 척도

부부간의 학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 Hudson과 McIntosh(1981)가 제작한 ISA(Index of Spouse Abuse)를 번안·수정하여 그중에서 심리적 학대 7문항과 신체적 학대 7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 = .90$, $\alpha = .93$) 조사와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신체적 학대 각각 7문항씩 그대로 묶었고, 또 신체적 학대만을 따로 요인분석하였다니, 가벼운 학대 4문항과 심한 학대 3문항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지난 1년동안 남편이나 아내가 질문지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문항만 빼고 '가끔 그렇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표기한 경우를 모두 학대로 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적·신체적 학대 각각의 7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했을 경우 비학대로 보고, 대처양식에 관한 문항은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대처양식 척도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으로 개발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갈등관리방법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척도 구성은 Sprey의 연구를 기초로 김양희(1986, 1993)가 제작한 갈등관리방법척도, Straus(1979)의 CTS를 번안·수정하고, 김경화(1986)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한국여성개발원(1993)에서 실시한 경험적 연구들을 포함한다.

(1)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예비조사, 본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 = .73$) 조사와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8문항이 선정되었고, 이 18문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서 나온 4개의 요인을 합의, 수동적 회피, 적극적 태도, 외부의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점수는 18점-90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예비조사, 본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 = .80$) 조사와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

의한 15문항이 선정되었고, 이 15문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4개의 요인은 합의, 수동적 회피, 적극적 태도, 외부의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총 점수가 15점-7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3) 개인의 적응도 척도

개인의 적응도는 안정감, 우울감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작성하였다.

안정감은 Harold Dupay의 GWB(General Well-Being)척도를 번안·수정하여 12문항을 선정하였고, 우울감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척도를 번안·수정하여 14문항을 선정하였다(Lennon, 1980).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75$) 조사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감 6문항, 우울감 12문항으로 총 18문항에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요인은 본 조사에서도 그대로 묶였다.

안정감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점수는 6점-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감이 높다.

우울감 문항 역시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총 점수가 12점-60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다.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부부7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는 1995년 2월 23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총 50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328쌍(656부)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부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328쌍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다. 즉 학대·비학대 부부의 수나 심리적 학대·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응답자 수가 다르므로 각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대상자수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

표집된 자료는 질문지의 측정도구 작성을 위해 신뢰도,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t-test, 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수준

1) 부부간의 학대수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먼저 학대부부와 비학대부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자료로 사용한 부부들은 총 328쌍 이었는데,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포함해서 학대를 받은 남편이 71.0%, 학대를 받은 아내가 78.4%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러한 학대부부의 학대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학대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경우를 보면, 지난 1년간 심리적 학대를 받은 집단은 78.1%였고, 전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동 중 어느 한 행위라도 당한 집단은 44.8%인 반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한 경우는 심리적 학대가 69.8%, 남편이 아내로부터 전체 신체적 학대행동 중 어느 한 행위라도 당한 집단은 25.9%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남편(N=328)	아내(N=328)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 령	20-29세	19(5.8)	55(16.8)
	30-39세	110(33.5)	115(35.1)
	40-49세	128(39.0)	126(38.4)
	50세이상	71(21.7)	32(9.7)
학 령	중졸 이하	45(13.7)	76(23.2)
	고졸 및 중퇴	146(44.5)	178(54.3)
	대졸 이상	137(41.8)	74(22.5)
직 업	무직/주부	11(3.4)	193(58.8)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159(48.5)	87(26.5)
	사무직/관리직	140(42.7)	41(12.5)
	전문직	13(3.9)	7(2.2)
	기 타	5(1.5)	
종 교	기독교	43(13.1)	68(20.7)
	천주교	13(4.0)	15(4.6)
	불 교	130(39.6)	146(44.5)
	무 교	139(42.4)	98(29.9)
	기 타	3(0.9)	1(0.3)
결혼지속년수	1-5년		62(18.9)
	6-10년		66(20.1)
	11-15년		57(17.4)
	16-20년		54(16.5)
	20년이상		89(27.1)
가족형태	핵가족		264(80.5)
	확대가족		64(19.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9(21.0)
	100-149 만원		123(37.5)
	150-199 만원		79(24.1)
	200만원 이상		57(17.4)

〈표 2〉 학대부부와 비학대부부의 일반적 경향

(N=328쌍)

	남 편 빈도(백분율)	아 내 빈도(백분율)
학대부부	233(71.0)	257(78.4)
비학대부부	95(29.0)	71(21.7)

위의 표에서 신체적 학대만 수준별로 분류한 것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의 정도를 알아내기 쉬운 편이지만, 심리적 학대는 개인마다 심리적 손상을 느끼는 경우가 다를 것이고 또 처음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수준별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 2〉와 〈표 3〉을 살펴 볼 때 학대를 받은 전체

〈표 3〉 부부간의 학대수준

	심리적 학대 빈도(백분율)	신체적 학대		
		가벼운 학대 빈도(백분율)	심한학대 빈도(백분율)	전체 빈도(백분율)
남편이 아내학대	256(78.1)	116(35.4)	31(9.5)	147(44.8)
아내가 남편학대	229(69.8)	69(21.0)	16(4.9)	85(25.9)

응답자 수보다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더한 응답자수가 더 많은 이유는 부부간에 심리적 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차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아내의 경우 전체 학대 응답자수는 257명으로, 심리적 학대를 받은 256명 중 116명이 신체적 학대까지 받고 있으며, 이 116명 중 가벼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31명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학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선행연구(조연구, 1989, 이영숙, 1990)와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여 학대 전체를 보았을 때는 선행연구(김갑숙, 1991)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차이점이나 질문내용에 대한 솔직성 여부 등을 들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부부간에 심리적 학대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심리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1) 심리적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취하는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주로 어떠한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 비교한 결과, 대처양식 중 외부의 지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내가 남편보다 외부의 지원($p < .01$)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경화(1986)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비신체

적 학대를 받았을 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서 외부에 도움을 별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요인별 내용을 보면, 합의(요인 I)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p < .05$)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수동적 회피(요인 II)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주로 배우자의 말에 복종($p < .01$)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태도(요인 III)에서는 남편이 먼저 소리쳐서 배우자의 말을 중단시킴($p < .001$),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p < .05$)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아내는 이혼이나 별거를 제의($p < .01$)하는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 외부의 지원(요인 IV)에서는 아내가 친구로부터 위로받거나 도움을 청함($p < .001$),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는($p < .01$)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제시한다는 것은 아내는 보통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 반면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나 심리적 모욕을 할 때 변명을 하거나 상황설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속에 여성이 더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아내가 외부의 지원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친구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이고, 상담기관 등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학대 자체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과 상담기관 등은 정신질환을

〈표 4〉 심리적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

요인	대처양식의 내용	대처양식 수준				t값
		남편(N=229)		아내(N=25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I 합의	양보하여 대화로써 해결함.	2.84	1.22	2.73	1.21	1.02
	이해할수 있는 정보를 제시함.	2.72	1.27	2.49	1.17	2.02*
	배우자와 의견일치를 보임.	2.62	1.23	2.65	1.19	-0.29
	전 체	2.73	1.00	2.62	0.93	1.15
요인 II 수동적 회피	문제삼지 않고 대충 지나감.	2.68	1.21	2.59	1.18	0.88
	문제점에 대해 의는 회피.	2.00	0.98	2.10	1.02	-1.12
	그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함.	2.95	1.19	2.85	1.26	0.90
	주로 배우자의 말에 따름.	2.59	1.13	2.95	1.27	-3.28**
	다른 일에 심취함.	2.46	1.06	2.48	1.18	-0.17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2.59	1.21	2.66	1.27	-0.70
전 체	2.55	0.67	2.61	0.77	-0.92	
요인 III 적극적 태도	배우자를 자주 위협함.	1.77	1.03	1.77	0.99	0.08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1.94	1.05	1.75	0.86	2.25*
	먼저 소리쳐서 말을 중단시킴.	2.10	1.11	1.73	0.86	4.01***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	1.56	0.99	1.47	0.80	1.05
	이혼이나 별거를 제의함.	1.36	0.81	1.60	0.97	-3.01**
	전 체	1.75	0.71	1.66	0.60	1.72
요인 IV 외부의 지원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함.	1.35	0.74	1.59	0.86	-3.32**
	친구로부터 위로받음.	1.40	0.76	1.68	0.97	-3.64***
	성직자로부터 조언을 구함.	1.19	0.65	1.28	0.74	-1.41
	상담기관을 찾아가감.	1.13	0.64	1.13	0.55	0.04
전 체	1.27	0.57	1.42	0.57	-2.97**	

*p<.05 **p<.01 ***p<.001

가진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일반적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보다는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친구나 친척들과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기가 쉽고, 다른 부부들이 취하는 해결 방법을 듣거나 위로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심리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심리적 학대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대처양식 비교 분석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의하면,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때 남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합의였고, 다음이 수동적 회피, 적극적 태도, 외부의 지원 순으로 사용하였다. 아내의 경우는 합의와 수동적 회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적극적 태도와 외부의 지원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합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만성적으로 심한 심리적 학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항상 배우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면 학대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간혹 그러한 상황이

〈표 5〉 심리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구 분	남 편 (N = 229)			아 내 (N = 256)		
		평 균	F 값	Duncan's	평 균	F 값	Duncan's
합 의		2.73	F =	A	2.62	F =	A
수동적 회피		2.55	181.33***	B	2.61	182.34***	A
적극적 태도		1.75		C	1.66		B
외부의 지원		1.27		D	1.42		C

***p<.001

생기더라도 서로 합의를 해 나간다면 부부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수동적 회피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내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대처라고 사료된다.

한편 남편이나 아내 모두 외부의 지원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갈등을 겪으면 외부에 표현화시키거나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송말희, 1990)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신체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1) 신체적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남편과 아내가 취하는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주로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 비교한 결과, 대처양식 중 수동적 회피($p < .05$)와 적극적 태도($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을 때 남편은 적극적 태도를, 아내는 수동적 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남편은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주로 적극적으로 맞서서 해결하는 반면, 아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아내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밝힌 차준규

(1987)와 김광일(198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같이 때리고 싸우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아내도 많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김경화, 1986, 김익기·심명희, 1992)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요인별 내용을 보면, 합의(요인 I)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p < .05$)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수동적 회피(요인 II)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영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적극적 태도(요인 II)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같이 때리고 싸움($p < .01$), 배우자를 자주 위협($p < .05$)하는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외부의 지원(요인 IV)에서는 유의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이 적극적 태도를 많이 취하는 것은 아내가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더라도 남편이 물리적인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위의 신체적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은 가벼운 학대와 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가벼운 학대와 심한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2) 신체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신체적 학대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대처양식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남편은 합의, 적극적 태도, 수동적 회피의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외부의 지원은 적게 사용

〈표 6〉 신체적 학대에 따른 대처양식의 일반적 경향

요인	대처양식의 내용	대처양식의 수준				t값
		남편(N=69)		아내(N=1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I 합의	그런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봄	2.14	1.05	2.17	0.96	-0.18
	조용히 의논하여 해결함.	2.61	1.19	2.54	1.12	0.38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함	2.65	1.19	2.25	1.02	2.44*
	전 체	2.47	0.95	2.32	0.84	1.10
요인 II 수동적 회피	그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함.	2.61	1.27	2.85	1.26	-1.27
	그냥 맞고 있음.	1.54	1.04	1.78	1.27	-1.33
	다른 일에 심취함.	2.35	1.15	2.32	1.15	0.17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2.29	1.35	2.46	1.42	-0.79
전 체	2.20	0.76	2.35	0.77	-2.04*	
요인 III 적극적 태도	배우자를 자주 위협함.	2.30	1.17	1.88	1.03	2.58*
	같이 때리고 싸움.	2.06	1.15	1.56	0.92	3.06**
	문제에 맞서서 해결함.	2.64	1.28	2.34	1.13	1.66
	전 체	2.33	0.85	1.93	0.75	2.23*
요인 IV 외부의 지원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함.	1.64	1.07	1.84	1.14	-1.17
	친구로부터 위로받음.	1.73	1.04	1.84	1.08	-0.69
	성직자로부터 조언을 구함.	1.33	0.78	1.36	0.86	-0.23
	경찰에 신고함.	1.32	0.88	1.16	0.67	1.26
	상담기관을 찾아가감.	1.29	0.81	1.26	0.85	0.25
전 체	1.46	0.79	1.49	0.75	-0.26	

*p<.05 **p<.01

〈표 7〉 신체적 학대에 따른 부부의 대처양식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구분	남편(N=69)			아내(N=116)		
		평균	F값	Duncan's	평균	F값	Duncan's
합의		2.47	F=	A	2.32	F=	A
수동적 회피		2.20	17.66***	A	2.35	28.67***	A
적극적 태도		2.33		A	1.93		B
외부의 지원		1.46		B	1.49		C

***p<.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수동적 회피와 합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적극적 태도, 외부의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편이나 아내 모두 신체적 학대 상황에서 합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신체적 학

대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의논하여 해결한 후에 다시 신체적 학대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3)일단 학대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편은 수동적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아내는 수동적 회피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참거나 못건디어 가출한다든지, 혹은 위급한 순간을 넘기려고 무조건 사과하기까지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대항하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조성숙, 1987).

이러한 순응적인 태도는 학대를 더욱 조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계된 대안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부들이 외부의 지원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학대문제가 가정내 문제라는 인식과 남편이나 아내 스

스로 알리기를 꺼려 하는 태도, 그리고 상담기관등 사회복지기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간의 학대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지원책을 이용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개인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1) 부부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학대부부의 적응도에 대

〈표 8〉 부부의 안정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 안정감											
	남편 (N = 233)			아내 (N = 257)								
	B	β	B	β	B	β						
심리적 학대	-.45	-.27***	-.10	-.06	-.09	-.08	-.29	-.27***	-.17	-.17*	-.15	-.17
신체적 학대	-.29	-.15*	.20	.13	.05	.05	-.05	-.03	-.05	-.04	-.12	-.12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합의 수동적 회피			.26	.30***	.11	.14			.38	.45***	.29	.30**
적극적 태도			.34	.26***	.55	.46**			-.02	-.02	.01	.00
외부의 지원			-.27	-.23**	.03	.04			.03	.02	.10	.09
			.00	.00	-.02	-.02			.04	.03	-.07	-.06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합의 수동적 회피					.25	.27*					.32	.31**
적극적 태도					-.02	-.02					.06	.06
외부의 지원					-.19	-.21					.11	.09
					.05	.05					.12	.10
회귀상수	3.45		1.84		0.98		3.57		2.26		1.23	
R ²	0.04		0.28		0.45		0.08		0.26		0.37	
F	7.45***		13.24***		4.44***		14.67***		13.86***		6.10***	

*p<.05 **p<.01 ***p<.001

〈표 9〉 부부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 우울감									
	남편 (N = 233)			아내 (N = 257)						
	B	β	B	β	B	β				
심리적 학대	.30	.27***	-.00	-.00	.41	.50***	.23	.30***	.17	.21*
신체적 학대	.33	.26***	.16	.15	.02	.02	.10	.09	.00	.00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합의 수동적 회피			-.06	-.09	-.17	-.22*	-.09	-.13*	-.03	-.03
적극적 태도			.02	.02	-.10	-.10	.11	.13*	-.03	-.03
외부의 지원			.16	.20**	.17	.22	.23	.23***	.10	.10
			.35	.33***	.16	.20	.20	.17**	.37	.33*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합의 수동적 회피					-.10	-.12			-.17	-.17**
적극적 태도					-.01	-.01			.17	.20*
외부의 지원					.10	.13			.31	.30**
					.38	.40*			-.11	-.11
회귀상수	0.91		1.02		0.53		1.02		0.75	
R ²	0.23		0.34		0.66		0.32		0.42	
F	49.25***		19.19***		10.26***		76.04***		29.81***	

*p<.05 **p<.01 ***p<.001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8〉에 의하면, 학대행동에 있어서 심리적 학대(B=-0.27), 신체적 학대(B=-0.15) 모두 남편의 안정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신체적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안정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변인들은 남편의 안정감을 4%정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합의(B=0.30), 수동적 회피(B=0.26), 적극적 태도(B=-.023) 영역이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이 28%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더니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중 수동적 회피(B=0.46),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중 합의(B=0.27)영역이 남편의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내의 경우는 심리적 학대(B=-0.27)만이 안정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안정감을 8%정도 설명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더니 심리적 학대(B=-0.17)와 대처양식 중 합의(B=0.45)만이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이 26%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적 학대든 신체적 학대든 합의(B=0.31, B=0.30)의 대처양식만이 의미있는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변인에 의해 아내의 안정감이 37% 설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부간의 학대는 개인의 안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처양식 변인이 부부간의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높여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합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부 개인의 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부정적이고 비신진한 학대 상황에서조차도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묻고 이해하면서 서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부부관계 향상에 더 효율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수동적 회피가 남편의 안정감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회피의 방법이 남편의 안정감을 높여 준다는 결과는 남편이 아내보다 사회적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바깥 일에 심취하다 보면 가정내 문제를 잊어버리기가 더 쉽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작용하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남편이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때 적극적 태도를 취할수록 안정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적극적 태도가 배우자와 맞서 언어적 공격이나 침묵 등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자체가 자신의 감정적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까지 동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남편의 긴장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부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남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심리적 학대($B=0.27$), 신체적 학대($B=0.26$) 둘다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우울감을 23%정도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더니 적극적 태도($B=0.30$), 외부의 지원($B=0.33$) 영역이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설명력이 34%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중 합의($B=-0.22$),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중 외부의 지원($B=0.40$)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66%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내의 우울감은 학대행동 중 심리적 학대($B=$

0.50)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이 변인은 우울감을 32%정도 설명한다.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더니 심리적 학대($B=0.30$)와 대처양식 중 적극적 태도($B=0.23$), 외부의 지원($B=0.17$), 수동적 회피($B=0.13$), 합의($B=0.13$) 모두가 우울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이 42%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변인을 추가하였더니 심리적 학대($B=0.21$)와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중 외부의 지원($B=0.33$),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 중 적극적 태도($B=0.30$), 수동적 회피($B=0.20$), 합의($B=-0.17$)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이 변인들에 의해 아내의 우울감이 53% 설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부간의 학대는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대처양식이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합의의 대처양식을 사용했을 때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학대를 받았을 때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수록 우울감이 높았다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 외부에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자원이나 권력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듯하다. 반면 아내는 이러한 가족제도 속에서 남에게 지원을 요청해도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 편견과 가정내 부부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화해하기를 요구하는 등 별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이거나,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내는 참고 인내하는 소극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같이 때리고 싸우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경우에도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학대를 받는 상황 자체가 개인의 안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 비학대부부보다는 학대부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학대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았는데, 심리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또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학대문제를 다룰때 심리적 학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상당수 학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상황에서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합의였고, 그의 남편은 적극적 태도를 아내는 수동적 회피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외부의 지원 영역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이나 아내 모두 합의의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의 문제는 학대상황에서 조차도 서로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아내는 수동적으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맞섰을때에도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의 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대문제가 사회 운동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수치스러운 면을 보였다는 생각때문에 개인의 적응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능한 한 부부간에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이 많으므로 적절한 대처양식을 사용했을때 개인의 적응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대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

도록 대처방안 마련과 표준화된 척도개발을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부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나 대중매체 등에서 교육을 통해 미리 예방하거나, 경찰, 병원, 상담기관, 법조계 등이 가정내 학대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며,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정상담소를 각 지역마다 두게 하거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부부문제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부부간에 대화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개개인의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화,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도시가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 2)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3집, 1985.
- 3) 김양희, "한국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부인의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86.
- 4) 김양희,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 1993.
- 5) 김익기, 심명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6)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 7) 송말희,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 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2호, 1990.
- 8) 전춘애,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1989.
- 9) 조성숙, "남녀결합의 불평등 구조-아내구타와 외도에 관한 상담사례분석-" 김광일, 가정폭력-그

-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88.
- 10) 조연구, “부부폭력의 역학조사”, 한양대 석사논문, 1989.
 - 11) 차준구, “아내구타의 현황”, 정신건강연구, 제6집, 1987.
 - 12) Gelles, R. J., “Family Violence, Abuse, and Neglect” *Families and Change*, (ed by) Mckenry, P. C., Price, S. J., 1994.
 - 13) Hudson, W.W., McIntosh, S. R.,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Two Quantifiabl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981.
 - 14) Lennon, M. C., “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pause: A Sociological Study”, The University of Columbia, 1980.
 - 15) Straus, M. 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